



중요현안 ‘긴급토론’ 수시편성

— 가을 편성 개편, 젊은 시청자층 위한 프로 신설 —



보도국장과의 대화

YTN이 10월 18일 가을 편성 개편을 단행했다.

YTN은 이번 편성 개편을 계기로 매일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이슈를 그날그날 선정해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 뉴스 전문채널로서의 폭과 깊이를 더해갈 방침이다.

특히 중요한 현안이 발생할 때는 ‘긴급토론’을 수시 편성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젊은 시청자 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연예계의 다양한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클릭 연예파일> (금 22:25, 토 20:25, 일 12:25 방송)과 음악계의 동향을 알아보고 뮤직비디오를 감상하는 <M II M> (엠투엠) (토 08:25, 일 22:25 방송)이 주말에 방송된다.

또 세계 각국의 문화와 역사, 풍물을 소개하는 <지구촌기행> (목 08:30, 토 18:25, 일 15:15 방송)이 신설됐다. 정책당국자나 저명인사를 초대해 한국 사회의 현안을 짚어 보는 <언론과의 대화>는 금요일 오후 3시 20분으로 방송시간이 옮겨지고, 해외통신원들이 각국의 소식을 전해오는 <재외동포뉴스>는 목요일 오후 1시 25분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위성DMB에 보도전문채널로 참여하게 될 YTN은 DMB 개시시점에 맞춰 추가적인 편성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방송품질향상위원회는 이번 편성개편을 앞두고 ‘편

집회의 기능강화’와 ‘편집부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매일 선정하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다양한 포맷으로 심층보도하고,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자협회 분회도 10월 5일 ‘보도국장과의 대화’를 갖고, 뉴스품질향상과 조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설 프로그램 ‘클릭 연예파일’ · ‘MII M’

일본 TBS와 협력 강화 합의



표완수 사장은 12일 일본 TBS를 방문해 스나하라 회장과 회담을 열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교환 등 양사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표 사장과 스나하라 회장은 또 한일수교 40주년을 기념한 한일 친선의 해(2005)를 맞아 양사 공동으로 보도특집물을 제작하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서로 협력

하기로 했다. 표 사장은 이에 앞서 일본의 한국어 방송사인 KNTV의 무토 사장을 만나 YTN 뉴스 프로그램의 판매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베이징 지국 사무실 문열어



뉴스 촬영과 전송 장비를 확충한 YTN 베이징 지국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 9월 15일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YTN 사무실에서 김하중 주중 한국 대사와 이훈복 재중국 한국인회 회장, 강갑술 YTN 보도국장 등 주요 인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지국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다.

김하중 대사는 축하에서 한·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가운데 YTN 베이징 지국 사무실이 문을 연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중국 관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달라고 말했다.

10월호 목차

- 121 ▶ 제2창사 기획시리즈⑤ - SO 협의회장이 보는 YTN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맞게 과감히 변신해야
- 131 ▶ 정현교 강릉지국장 정년퇴임 ▶ YTN단신
- 141 ▶ YTN 스페셜 - ‘사람과 자동차’ 제작기 ▶ YTN 스페셜 - ‘세계의 상인, 화상’ 제작기
- 151 ▶ CNN 연수후기 - 뉴스 개발에 승부 거는 CNN
- 161 ▶ 제7회 YTN 전국 대학생 영상공모전
- ▶ 28회 올림픽 취재기-아테네를 다녀와서...
- 171 ▶ 해외통신원교육 참가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 유익하고 알찬 교육
- 181 ▶ YTN 가족의 날 - YTN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2창사 기획시리즈⑤ - SO 협의회장이 보는 YTN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맞게 과감히 변신해야



유재홍 SO협의회장 한국케이블TV 수원방송 대표이사

YTN과 나의 인연은 10년 전 케이블TV가 우리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지 한달쯤 되었을 법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어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삶을 벌이고 있는 매물자의 중계방송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당시 나는 어떠한 연유를 뒤로하고서 서초케이블TV의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1년 내내 케이블 방송사업을 준비하고 29개 PP 채널을 서초구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영업 및 네트워크를 구축중이었다. 개국한지 불과 한달도 넘지 않아 서초지역에서 전 세계의 뉴스의 1면톱을 장식할 정도로 커다란 사건이 벌어져 온통 매스미디어는 사고 현장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며, 전 세계인과 더불어 안타까움에 발을 구르고 있었다.

당시 내 지역으로는 서초지역에는 약 7,000여 가구만이 케이블을 시청할 수 있었고 KBS, MBC, SBS를 비롯해 TV방송의 카메라는 일주일동안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였다. 그때 꾸준히 그 사건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방송은 다름 아닌 YTN이었다. 기존 지상파 3사는 일주일 후 이 사건을 뉴스시간으로 옮겨가며 상황전달로 축소 보도를 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오로지 YTN만은 많은 매물자와 행방불명된 가족의 안타까운 모습과 매물현장 수색작업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사고본부가 설치되고 행방불명된 가족을 위해 서초구내에 위치한 서울교대 체육관이 사고 대책본부 및 행방가족보호소이었다. 당시만 해도 서울교대의 체육관은 서초케이블TV 가입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전송망이 설치되지 않았다. 현장에 가 본 나는 24시간 안타까운 현장을 직접 생중계 하고 있는 YTN 방송을 200-

300명의 실종자 가족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안타까운 호소로 전 인력을 동원하여 특별 가설 작업을 하도록 하여 대형TV 5대를 긴급수송하고 24시간 YTN 시청을 가능케 하여 실종자 가족에게 큰 박수를 받은바 있다. 이것이 나의 케이블TV 인생의 시작이었으며, 지역 SO와 PP 특히 24시간 보도채널의 실상과 협업 그리고 늘 보고서와 교과서에서 접했던 현실이 펼쳐졌으며 케이블TV의 좋은 출발은 예고 되었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 케이블TV는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우리나라 텔레비전 시청가구의 73%는 케이블TV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 채널도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약 80여개 채널이 케이블TV를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가입자를 비롯하여 케이블 가입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무궁무진한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다.

즉 디지털 케이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해왔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그리고 이를 선도하는 디지털 융합은 디지털이라는 공통 유전자에 의해 관련 사업의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사업자는 경쟁적으로 가입자에게 새로운 서비스와 융합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각각의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며 각 관련 사업자의 사업방향과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YTN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송사로서 거듭나고 있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딛고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그간의 YTN 방송프로그램을 위해 쏟은 정성과 그 열정은 아무리 강조하고 찬사를 보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YTN은 디지털케이블TV의 발전과 더불어 제작 환경과 YTN의 집적된 정보를 이제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수 있다. 즉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는 지속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다. 즉 최근 SKYLIFE에 이어 지상파 DMB, 위성DMB가 그것이며 지속적으로 2010년까지 전체 가구수의 70%는 디지털 수상기가 보급될 것이며 2003년 기준 약 12조의 국내콘텐츠 시장은 모바일, DMB 등 신규플랫폼 등장으로 2010년까지 최소 3배의 성장을 전제할 때 약 36조원 시장이 형성 될 것이며, 이중 방송콘텐츠 점유율은 최소 50%로 약 18조원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전망과 함께 미래는 멀티미디어 복합 서비스 제공에 의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다양성 구현이 요구되고 있다. 즉 네트워크 중심이 아닌 서비스 중심의 정책은 다양한 소비자의 가치 및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융합형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활성화가 될 것이다. 즉 소비자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 주문형 정보 제공의 기능이 요구되어 진다는 얘기가.

따라서 디지털 케이블TV는 다채널, 고품질/음질, VOD서비스, 양방향, 번들링 서비스 및 독점적 채널을 통하여 위성방송과 서비스의 경쟁을 하여야 하며 고객들은 이와 같은 서비스의 질로 매체를 평가하여 채택할 것이다. 즉 현재 케이블TV는 위성방송보다 월등하게 많은 수의 채널을 제공하여 고객의 세분화된 Needs를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향후 컬러 콘텐츠로 각종 방송 HD콘텐츠를 확보하여 위성방송보다 많은수의 HDTV 채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YTN도 향후 HD수준의 많은 정보 프로그램을 축적 제공해야 할 것이며 케이블뉴스방송프로그램도 RVOD, SVOD, 및 FOD를 제공하여 위성방송의 NVOD 위주의 서비스대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YTN도 이제는 더욱 더 탐사보도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해야 하며 방송과 통신 즉 컴퓨터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 제공될 뉴스의 가공 방향을 더욱 획기적이고도 과감한 변신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배경화면과 그래픽 및 조영 등 화면의 Digital 변신이 요구되어 지고 있으며 특화된 수용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YTN의 발전이 케이블TV의 발전임을 서로 자각하며 방송채널사업자의 대표주자인 YTN을 적극 성원한다.



YTN간부를 대상으로 특강하는 유재홍 회장

게시판

포상

- 특종상 금상
 - 시화1부 경찰팀 연쇄살인범 유영철 관련 보도 / 김영우 · 황순욱(사회1부) 연애인, 프로야구 선수 등 병역비리 보도
- 특종상 은상
 - 김승재(동취재팀), 한원성(영성취재부) 부산신항, 인천 공항 등 국제사업 배수제 부실 보도 / 황보선(동취재팀), 정철우(영성취재부) LG전자 서비스센터 탈세 의혹 보도 / 최동호(스포츠부), 정영희(사회1부), 하성준(영성취재부) 장흥 박천 IOC위원 단독 기자회견 보도
- 특종상 동상
 - 윤경민(정치부) NLI 교전사태 대통령에 보고 누락 보도 / 박소정(사회1부), 김태형(영성취재부) 등기소 공무원들의 급료료 실태 보도 / 이병식(사회2부), 장민수(동취재팀) 지하철굴사 사정, 시의회 회의중 눈속임 답변 보도
- 우수프로그램상
 - 유홍실(경제부), 이강민(동취재팀), 권석재 · 이승준(영성취재부) YTN스페셜 4부작 '세계의 상인, 화상', '장흥' 등
- 공로상
 - 장기(편집2부) YTN 홈페이지 관리 및 개선 / 설명수 차장(마케팅2부) 신규 · 합천 전라북도 개발로 수익증대 / 김대현(특위사업국) 서울타워 안전관리

·창의상

김한철(제작기술부) 스킴관리버전 운용 개선 10.4

■입사

최유석(기획관리부), 이문석(대전지국) 8.30 / 정현교 강릉 지국장 10.1

■퇴사

정현교 강릉지국장 정년퇴임 9.30 / 최이명(마케팅1부) 10.16

■전보

김시모(모국장대우) 제작국장 ▲남상규(부국장대우) 보도국 부국장 ▲주동원(부국장) 보도국 대기자문화기획담당 ▲박강민(부국장) 보도국 대기자포토담당/감사실 감사위원 겸직 ▲신동윤(부국장) 보도국 방송위원 ▲이재희(이사대우) 편집심의실 방송심의위원 ▲조복환(이사대우) 편집심의실 사서판찬위원 ▲김홍식(차장) 방송심의부장 직대 ▲김홍규 총무부장 ▲김승현 편집1팀장 ▲김익진(부장대우) 편집2팀장 ▲오수현(부장대우) 사회2부장 ▲조용원(부장대우) 영성취재팀장 ▲조성용(차장) 영성편 집팀장 ▲홍문표(부장대우) 영성특집팀장 ▲백동범(부국장대우) 문화사업팀장 ▲최일기 부국장대우(특위사업국 관리부장) ▲기정훈, 유환홍 전라북도 기획팀 ▲장정혁

기동취재팀 ▲김정희 차장, 배성준 편집1팀 ▲방형삼, 이상준 편집2팀 ▲강성웅 편집2팀(심의담당) ▲조승준 차장대우, 김중욱 편집3팀 ▲박병현 차장, 정병화 정치부 ▲김진호 차장대우, 함형건, 임승환, 박홍규, 박경석 경제부 ▲김주현, 박희전, 최재민 사회1부 ▲오인석 차장대우, 홍상희 사회2부 ▲김진디, 신현준 국제부 ▲우장균 차장대우, 김민경, 한상욱 문화과학부 ▲이기정 차장대우 제작1팀 ▲이재철 차장, 황보선 제작2팀 ▲이석재 마케팅1부 ▲백송하 매체관리팀 ▲기구 변경에 따른 일괄발령 : 미디어국 중계사업팀 - 해외사업팀 10.25

■부음

박근표 차장대우(편집2팀) 비보상 9.5 / 류희희 제작1팀 장비부상 9.29

■결혼

오유철(영성취재부) 10.2 / 이상준(편집1팀) 10.9 / 신동훈(편집2팀) 10.9 / 민재형(그래픽부) 10.9 / 김원준(전라북도 기획국) 10.14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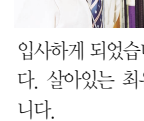
서영진(총무부) 득녀 9.5 / 김진국(대전지국) 기획부 득남 9.8 / 김한성(기획관리부) 득남 10.14

새얼굴 - 인사 드립니다



최 유 석(75. 7. 20) 주석담당

중앙대 대학원 경영학과 / 유화증권 주석담당



너무 근무하고 싶었던 YTN에 드디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YTN 인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최유석, 깨어있는 최유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 석(75. 10. 11) 대전지국 취재기자

한국외대 신방과 / 한국경제TV 기자 먼저 YTN 가족이 됐다는 사실에 가슴이 찡찡합니다. 앞으로 정확하면서도 쉬운 뉴스를 만드는 기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에서 뵙겠습니다!

정현교 강릉지국장 정년퇴임후 다시 현장으로

서봉국 기자의 촉가로 시작된 퇴임식에서 정 지국장은 30년 동안 현장에서 다뤘던 굵직굵직한 뉴스들과 취재현장에서 만난 인생의 반려자 등을 말했고 또 다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배려해준 회사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퇴임식은 10월 8일 보도국에서 열렸다.



[퇴임사]

오른 손에 마이크를 든 채 검은머리 휘날리며 11년을 뛰었고 나머지 19년은 이 가발을 쓰고 태백준령을 달음질했습니다. 모두 합쳐 보니 30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못 선배들의 정년퇴직도 적잖이 보았지만 나오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만 여겨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월은 다함께 쉽 없이 흐른다는 진리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쉽다거나 서럽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후배들이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주시니 그저 행복할 따름입니다. 다만 선배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서 과분한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에 쭉스러울 뿐입니다. YTN에

서는 제가 처음 맞게 된 이런 기쁨, 모든 선배들이 차례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선배들도 이런 장을 통해 후배를 아끼고 사랑하는 뜨거운 담금질이 멈춰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YTN 이 방송을 시작하던 그해 여름 경포해수욕장에서 김동철 기자와 썬찰을 즐기는 아가씨의 뽕뽕한 힘을 ENG로 촬영하다 경찰에 잡혀가 YTN을 누누이 설명하고야 풀려났던 일도, SNG 중계차로 무장 탈영병의 인질현장을 무리하게 접근하다 제지하던 장병들의 탄알 장전소리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습니다. 강릉에 무장공비가 침투한 다음날, 송이를 채취하다 공비와 마주했다는 주민의 말에 흥분하여 인터뷰를 해볼 욕심에 마이크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던 무모함도 기자가 아니었다면 체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장공비의 총에 맞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나 생각해볼 문제였습니다.

저는 3년 전 동해안의 새해 일출 취재 현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YTN이 내 인생의 반려자를 맺어준 것입니다.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저를 두고 백의중군하는 1년차 기자로 000 나의 퇴직을 아무에게도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외치려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회사의 게시판에 온정주의를 혁파해야한다는 방을 보고 미리 준비한 1성

을 끌껴 삼켜버렸습니다.

그렇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기 때문에 서운하다거나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정하며 매달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감시의 표적이 두려워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는 비굴함도 보이지 않겠습니다.

YTN이 한때 침몰직전까지 몰리면서 반년이 넘도록 월급을 받지 못했어도 마이크를 놓지 않았듯 절반으로 잘린 연봉의 그 절반은 현장 취재보도로 상쇄하고 나머지 절반은 광고 등을 통한 수익사업에 적극 참여해 반드시 보답할 각오입니다.

회사 측의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저버리지도 않겠지만 감시의 눈길과 채찍 또한 기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후배들의 이 온정,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YTN단신

지어소프트와 DMB콘텐츠 공동개발 합의



YTN은 이동통신 솔루션 업체인 지어소프트와 지상파 DMB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10월 5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YTN과 지어소프트는 기존 데이터방송이나 무선 데이터서비스와 차별되는 신개념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지어소프트는 특히 위피와 브루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의 개발과 운영 경험을 지상파DMB에 접목시켜, DMB의 최대 수요층으로 예상되는 휴대폰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지어소프트는 이를 위해 YTN이 이달 중 설립할 DMB 법인에 주주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일단 초기법인에 5억원을 출자, 25%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YTN은 지어소프트 외에 교통방송 TBN, 쌍용정보통신 등 경쟁력 있는 10여개 방송통신업체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다.

YTN미디어 20억 투자 유치

YTN미디어는 대한전선과 9월 7일 YTN 타워에서 투자조인식을 갖고 20억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YTN미디어는 이번 대한전선과 계약을 시작으로 올해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신규 채널 개설 등 MPP 사업



은 물론 출범을 앞두고 있는 DMB 방송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대한전선은 YTN미디어 지분의 8.4%인 26만6천주를 확보하고 뉴미디어 방송 콘텐츠를 공동 육성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전선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그동안 통신 케이블 산업에서 쌓아온 역량을 케이블 방송 등 뉴미디어 산업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대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YTN과 청주대가 산학협력 협약식을 9월 23일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YTN과 청주대는 케이블방송의 발전 등을 위해 학술·방송정보를 교환하고 세미나 공동 개최, 교육훈련시 상호 인력지원 등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펼쳐갈 예정이다.

포토뉴스

방송기술인협회 체육대회

YTN 기술인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방송기술인 체육대회가 10월 16일 일명유원지에서 열렸다. 박찬중 기술국장과 70여명의 기술국 직원이 참여해 족구와 축구경기 등을 펼쳤다.



앵커팀 메이크업 교육

앵커팀은 9월8일 보도국 회의실에서 아모레 퍼시픽 김효선 강사를 초청해 방송 메이크업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 자리에는 앵커팀과 분장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실제 분장 시연을 해보며 최근 메이크업의 경향과 분장방법 등 유익한 정보를 들었다.



YTN 스페셜 - '사람과 자동차' 제작기

결론은 사람이다...!



왼쪽부터 현덕수 박철원 권한주 이승환

7월 9일 금요일 오후, 자동차 특집팀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꼭 막힌 국도를 뚫고 나오느라 무거운 눈꺼풀을 의식하는 순간, 졸음을 깨우는 휴대전화 벨소리!

특집팀 만행인 박철원 선배의 변화가 짝혀 있었다. 박선배는 다음주 월요일로 다가온 일본 출국을 위해 서류정리와 막판 섭외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도요타 취재일정에 자질이 생겼어! 일본 출국을 앞당겨야겠어” 팀원들에게 낯색이었다. 일요일 근무까지 걸려있기도 하거니와, 경황없이 서둘러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섭외가 그렇게 어렵다는 도요타 자동차 아닌가? 취재원의 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 다행히 일요일 비행기 편이 있었다. 그렇게 허겁지겁 자동차 특집팀의 해외취재는 시작됐다. 숨을 들

리기 무섭게 이번엔 일본 취재의 또 다른 축인 نيسان 자동차가 문제를 일으켰다. 취재팀은 큐슈를 거쳐 나고야에 있었다. 도요타자동차를 취재 중이었고, نيسان과의 약속은 2-3일 뒤로 예정돼 있었다.

국내에서부터 e-메일과 전화로 여러 차례 취재내용을 사전에 알렸고 일정도 조율됐지만,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취재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자존심만 앞세우다간 취재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었다. 나고야에서 도쿄까지는 4시간! 일본어에 능통한 박철원 선배가 현지코디와 함께 도쿄로 향했다. 답관을 찾기 위해서였다. 잠시나마 헤어지는 게 왜 그리 섭섭한지... 이틀 뒤 나고야로 돌아온 박선배가 왜 그리 반갑던지...

박선배도 도쿄에서 나고야로 돌아오며 집났던 아들 데리러 가는 심정이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날 밤 취재팀은, 짧지만 애 달았던 이틀간의 회포를 술잔에 날려보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نيسان이 자사의 부정적인 면을 취재하러 온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난관은 계속됐다. 우리 팀을 괴롭힌 것은 무엇보다 날씨였다. 통상 비가 내리면 취재에 여러 장애가 생기 마련이다. 비가 안 내려 다행이다 싶더니, 찌는 듯한 더위가 복병이 될 줄이야...

도쿄의 낮 최고기는 39.5도!

해외 취재기간 내내 우리팀을 괴롭혔던 무더위는 중국취재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상하이의 낮 기온은 상상

을 초월했다. 마치 건식 사우나에 들어서면 숨이 턱 막히는 열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딱 그 짝이었다.

자동차특집이어서 실내보다는 외부취재가 대부분이었다. 옷은 금세 땀으로 젖었다. 그래도 무거운 ENG카메라와 각종장비로 무장한 이승환, 권한주 기자 앞에선 차마 땀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열흘 남짓의 국내취재와 25일간의 일본, 중국 취재!

팀을 이뤄 취재에 나섰던 이 기간이 가장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사전 기획과 섭외기간에 느꼈던 고독함과 막막함을 떨쳐 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힘들고, 아쉬웠지만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팀을 위했던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

귀국한 뒤 후반 편집 작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취재 때 겪었던 에피소드를 되새김질하며 즐겁게 일했다. 취재후기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뭘 쓸까 잠시 고민했지만 결론은 사람이었다. 모든 것은 사람에서 출발해 사람으로 매듭지어진다. 특집내용이 궁급하면 홈페이지를 보시고, 그나마 취재후기로 남기고 싶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이다. 취재도 그랬다. 멋진 자동차, 드라마틱한 기업회생, 치열한 시장쟁탈전, 미래를 위한 개발 경쟁. 그 모든 과정의 성공열쇠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 어떻게 사람들을 묶어내는가였다.

그래서 이번 특집타이틀이 <사람과 자동차> 아닌가? 팀워크와 동료애!

힘들긴 했지만 그동안 바쁘다고, 귀찮다고 잊고 지냈던 그 뭉클한 것을 진하게 맛봤다. 이번 자동차 특집팀의 최대 성과로 올리는데 주저함이 없다.

현 덕 수 (경제부)

YTN 스페셜 - '세계의 상인, 화상' 제작기

중국, 피해갈 수 없는 나라



왼쪽부터 이승준 류충섭 권석재 이강문

한달에 걸친 취재가 마감되는 날, 우리 일행은 상하이에 있는 한국 기업 주재원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로에 지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그는 중화권에서 지난 10년 동안 근무하며 격동하는 중국의 모습을 지켜본 소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였다.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몇 년 안에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중국으로 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역사로 보면 먼 과거에 강제로 중국으로 끌려왔던 것처럼, 머지않아 지방에서 사는 가난한 노동자를 모아 중국으로 오는 이들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를 돌아다니며 중국 기업인, 화상들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두려움과 걱정이 중국에 도착한 이후 더욱 심해진 탓일까? 주재원이 담당하게 털어 놓은 말이 상하이 푸둥 지구의 현란한 스카이라인과 겹치며 무서운 예언처럼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슬기운마저 올라와 우울한 심

정이 된 우리 일행을 향해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국도 우리 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마음껏 장사하고 돈을 벌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면 우리 땅이 아닙니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대세라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더 개방하고 더 자주 왕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YTN의 이번 특집물은 그런 점에 볼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립 서비스였겠지만 <세계의 상인, 화상> 특집물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화 경제권의 오늘을 취재함으로써 우리 한민족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것이 사실이다. 실력으로 무장된 이강문 PD, 권석재, 이승준 기자로 이뤄져 기획 단계부터 드림팀으로 불렸던 우리 팀은 이번 특집에서 민족 공동체를 바탕으로 세계화 흐름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화상들의 모습을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취재를 통해 화교 기업인들이 중화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어 영향력을 무섭게 확대하고 있으며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이미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전하는 중화 경제권에 관한 취재는 동시에 지난 97년 이후 국민소득 만 달러에 발목이 잡혀 있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수출 호조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돼 정부가 공언했던 5% 성장도 내년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부 분열로 인한 무기력증이다. 실용적인 중

국인들이 성장을 향해 국가적 힘을 모으고 있는 반면 우리는 명분론에 사로잡혀 방향을 잃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 해마다 60만 명씩 배출되는 대졸자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고공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 상하이 주재원이 말했듯 먹고 살기 위해 중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인들 역시 사회와 국가 발전을 이끌었던 창의적인 기업이 정신을 점차 잃고 있다. 현실을 능동적으로 타개하기 보다는 정부 정책을 탓하며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만연한 평등주의로 인해 그나마 남아 있는 성장 동력도 꺼질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반도체와 휴대폰 등 몇 가지 수출 품목의 호조로 견인되는 성장은 중국의 맹목적으로 한계에 이를 것이다. 이미 중국은 첨단 기술에서도 우리와 1-2년 격차로 따라 붙은 상황이다.

특집물이 방영되는 날, 꼼꼼히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동안 만난 화상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부자이면서도 털털하고 탈 권위적이며 실용적인 경향을 지녔다. 또 대다수가 중국어는 물론 영어도 능통해 국제무대에서도 어려움이 없었다. 화상들과 경쟁하며 중국을 우리 땅처럼, 세계를 안방처럼 누리고 성공하기 위해 그들보다 더 실용적인 자세로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계약을 한꺼번에 없애려 하는 명분론을 버리고 작고 구체적인 일부터 개선해 나가는 자세로 무장해 곧 다가올 중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류 충 섭 (경제부)

뉴스 개발에 승부 거는 CNN



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다.

앵커를 스타로!

보수주의 색채가 강하고 뛰어난 앵커들을 보유한 폭스 뉴스(Fox News)가 시청률에서 앞서면서 CNN은 중대한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됐다. 그래서 간판 앵커를 내부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심 없이 계속되고 있다. 주요 앵커들은 뉴스 블록에 배치돼 자기 이름의 프로그램을 2~3시간 동안 진행한다. 직원들 대부분은 우리처럼 고정된 급여를 받지만 능력이 검증되고 명성이 높은 앵커들은 고액 연봉 계약을 통해 특

제작한 패키지(리포트)는 하나의 뉴스 형식일 뿐이다. 앵커와 프로듀서, Writer 등으로 구성된 편집 팀의 책임 프로듀서는 취재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수시로 필요한 뉴스를 주문 제작한다. 한 책임 프로듀서는 이 과정을 "취재 기자와 편집 팀의 합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뉴스를 '뉴스 쇼'(news show)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상당수의 유능한 전문 인력이 편집 팀에 배치돼 있고, 이들은 최고의 뉴스 쇼를 책임진다는 데 자부심이 대단하다.

[장면 #4] 프랑스 사이클 경주대회에서 암스트롱이 6연패한 날 오후 4시, 헤드라인 채널의 편집팀원들이 마주 앉아 편집 회의를 열었다. 프로듀서와 Writer, 앵커들은 무엇을 주요 뉴스로 다룰지, 그러면 이를 어떤 형식으로 방송할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 때 한 명이 암 전문기를 출연시키자고 제안했다. 암스트롱이 암을 극복했다는 얘기는 널리 알려졌는데 그 감동적인 얘기를 의사로부터 직접 들어보자는 제안이었다. 프로듀서의 표정이 환해졌다. 차별화된 뉴스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장면 #5] 바로 다음날, 이번에는 국제 뉴스 취재부인 International Assignment Desk, 점심 직후에 한 통신사가 1보를 전했다. 이라크의 한 무장단체가 일본인을 처형하겠다고 협박한 글이 인터넷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확인 기사였다. 내근 기자인 한 Assignment Editor에게 긴급히 확인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자 이 여기자는 이라크 지국의 취재 기자와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아랍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으로 작성된 사이트들에 들어가 순식간에 확인을 했다. 무려 6개 나라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을 갖춘 기자였다. 이라크 지국은 본사 내근 기자의 도움에 힘입어 신속 정확한 생방송을 할 수 있었다. CNN의 화면에 등장하는 취재기자(on-air reporter)들의 뒤에는 이처럼 이들의 방송을 지원하는 든든한 인재 풀이 갖춰져 있다.

지난 7월 12일부터 3주 동안 CNN의 IPP(International Professional Program)에 참가한 경험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앞서 '방송품질향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CNN의 뉴스 생산 구조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를 사보에 구체적으로 전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CNN이 어떻게 고품질의 생생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 내용은 1주일 동안 진행된 CNN 주요 임직원과의 의견 교환과 2주일에 걸친 제작 현장 관찰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연수 소감은 지난 호에서 간략히 전했고, 뉴스산업 측면에서 바라본 CNN News Group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서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생략하겠다.

특히 대접을 받는다.

[장면 #2] "앵커의 생명은 뉴스 전달력에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터뷰 능력이다." CNN International의 한 유명 앵커는 IPP 참가자들과 수인사를 하자마자 이 얘기부터 꺼냈다. 뉴스 메이커의 입에서 뉴스를 이끌어 내는 데는 앵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인터뷰 노하우를 줄줄이 꺼내 놓았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한다.

- ▶ 최고의 인터뷰는 질문 하나로 족하다. 나머지 질문은 출연자의 답변을 듣고 나와야 한다.
- ▶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던져라. 주요 질문을 미룰 경우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 ▶ 일반적인 질문은 평이한 답변을 이끌어 낼 뿐이다. 특히 뉴스메이커에게는 더욱 그렇다.

'원 소스 멀티 뉴스'

CNN은 동일한 뉴스를 방송하면서도 현장 생중계를 비롯해 내, 외부 기자의 스튜디오 출연, 전문가 출연, 녹취(soundbite), 단신, 그래픽 등 동원 가능한 방송 형식을 최대한 활용한다. 기사의 원천은 한 줄기이지만 시청자가 보는 뉴스는 결국 여러 개의 형식인 셈이어서 "one source, multi news"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녹취의 활용 빈도는 매우 높다. 보도국이 디지털 뉴스 룸으로 전환한 덕분에 누구든지 촬영 화면을 직접 보면서 여러 각도에서 필요한 녹취를 손쉽게 찾아내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

[장면 #3] CNN U.S.A. 채널의 부조(control room)를 방문한 어느 날 오전 10시, 책임 프로듀서와 현장 기자, 취재부서, 중계진이 비상 통신망을 통해 급박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날 오전은 9/11 진상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때였다. 대형 뉴스의 발표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CNN은 새로운 뉴스 형식을 만들어갔다. 카메라는 한 자리에 모인 9.11 희생자 가족들을 비취주었다. 이들의 표정과 말 한마디는 빅뉴스가 압박한 시점에 생동감을 불러 주었다. 이후 이들의 반응은 정부의 발표와 대립 각을 세우면서 또 하나의 뉴스를 생산해 냈다.

뉴스쇼는 편집 팀의 힘!

CNN의 편집 팀들은 취재팀에서 올린 제작물들을 넘겨받아 단순히 나열 식으로 방송하지 않는다. 취재팀이

뉴스 개발에 앞장선다

CNN의 으뜸가는 특징은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뉴스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한다는 점이다. 뉴스는 역시 뉴스 메이커로부터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CNN은 정규 방송이나 토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내로라하는 주요 인사들을 불러 끊임없이 신선한 뉴스를 생산해 나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출연진 섭외를 전담하는 'Booking'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면 #1] 지난 7월 중순 어느 날 오후 2시, 애틀랜타 본사의 Booking 팀원 5명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들은 워싱턴 지국의 Booking 팀원들과 전화 회의에 들어갔다. 직원들은 CNN U.S.A나 Headline 등 각 채널의 책임 프로듀서들이 어떤 출연자를 원하는지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출연자에 대한 섭외를 논의했다. 이후 확정된 출연자 목록을 훑어보았다.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미 고위 관료 출신의 이라크 전문가, 오사마 빈 라덴의 친척, 부자 되기 전문가, 주간지 편집장, 노인 전문가, 퇴역 장군, 그리고 카지노 전문가도 눈에 띄었다. 이러한 목록은 몇 장에 걸쳐 계속됐다.

CNN이 비용을 아끼지 않고 이라크 등 주요 뉴스 현장에서 위성이나 비디오폰(video phone)을 통해 생중계를 계속하는 것도 독자적인 뉴스생산의 또 다른 축이다. CNN이 뉴스의 선도자(agenda-setter)라는 자부심을 갖고 뉴스를 개발하는 한 바퀴와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뉴스를 전하는 다른 한 바퀴는 CNN 호를 움직이

정보의 빈부 격차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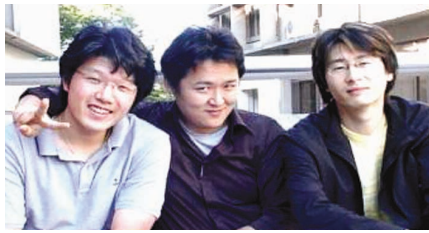
CNN 직원들이 사용하는 AVSTAR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았더니 뉴스와 관련된 온갖 정보가 수시로 올라왔다. 백악관과 국방부 출입 기자 등은 새로운 팩트가 확인되면 곧바로 한 줄로 전한다. 이 정보는 직원들에게 똑같이 공개된다. 제작진이 한 눈에 뉴스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또 AVSTAR에는 직원들끼리 언제든지 편리하게 메시지를 즉각 주고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의사소통이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 외교 정책에 'CNN 효과'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CNN이 성공한 배경에는 이처럼 뉴스를 개발해 가는 노력이 밑거름이 됐다고 본다. 뉴스를 기다리고 전하는데 익숙했다면 오늘날의 명성은 남의 차지로 돌아갔을 것이다. CNN은 방송 채널의 성격 면에서는 우리와 흡사하지만 방송 시장과 문화, 시청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다른 점이 훨씬 많다.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인 점은 분명하지만 무턱대고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CNN의 성공 모델을 눈여겨보면서 YTN에 적합한 뉴스 생산 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이다.

이 광 명 (사회1부)

제7회 YTN 전국 대학생 영상공모전 대상 후기

“우리 마을 음식을 소개합니다”



왼쪽부터 조석현, 장정욱, 이 완

전국대학생영상공모전 참여

졸업을 앞두고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학교 선배인 장정욱 형의 전화였습니다.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선뜻 참가하기가 부담스러웠던 YTN 전국 대학생 영상공모전은 선배의 전화 한 통으로 친근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화화에 재학 중인 특성상 영상물을 제작해 본 경험이 조금 있었고, 그것은 저희에게 자신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주제들을 살펴보면

서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보편적인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 낼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아이디어 토의를 거쳤고 제작 능력과 환경을 고려해 가며 몇 개의 간략한 시나리오들을 구성했습니다. 결국, ‘쌀’을 주제로 영상물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로덕션 운영

제작 단계는 여러 힘든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완전한 시나리오를 위해 헌팅을 다니면서 생각했던 콘티에 맞는 장소를 발견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인터뷰한 자료들은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서 작위적인 방법이 아니면 원하는 내용을 얻어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에 그런 인터뷰들은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팀원 간의 스케줄 조정이었습니다. 팀원들 각자의 졸업 영화 연출과 촬영 등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작업인 이번 작업은 그만큼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최종 결정된 장소에서의 촬영과 편집은 겨우 수 일만에 진행되었습니다. 부족한 콘티를 순발력 있게 조석현 군이 촬영하였고, 편집 과정에서 나온 장정욱 형의 아이디어와 테크닉으로 작품은 힘들게 정상적인

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레이션의 녹음은 밤을 세워가며 이를 만에 할 수 밖에 없었고, 여기에 과 동기인 김서원 군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렵게 정성없는 상태에서 한 단계씩 작업이 진행되면서 순간순간 힘들었지만 결국엔 기한에 맞게 작품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소감

속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몇 번씩 되새기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작품이라 애착이 큼니다. 바쁜 일정들 속에서 완성해 낸 작품이라 내심 믿겨지지 않는 듯한 기분도 듭니다. 대학생활을 정리하고 있는 시기에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YTN과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완 (동국대)

제7회 YTN 전국 대학생 영상공모전 수상작

대 상	우리마을 음식을 소개합니다 이 완, 조석현, 장정욱(동국대)
우수작품상	CCTV 권하는 사회 조기범, 홍익표, 이현주, 김성수(서울산업대)
장려상	사미인곡 이정선, 방요한, 박종경(성결대)
네티즌상	쌀! 제도약을 꿈꾸다 문신혜, 배성연, 김영은, 김연주, 박정선(동의대)

28회 올림픽 취재기

아테네를 다녀와서...



왼쪽부터 정병화, 최동호, 하성준

현지시간 새벽 2시 반. 후퇴지근한 열기가 밀려온다. 신화의 땅 그리스에 내딛는 첫 발. ‘108년만의 귀향’이라는 아테네 올림픽의 개막이 만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시간. 고요하게 잠든 아테네 시내를 지나 속도로 가는 길에 늘어선 올림픽 광고판과 나무거는 올림픽 깃발이 반갑게 인사했다.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몰려든 아테네는 한껏 분위기가 달아있었다. 축제의 장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올림픽 사상 최대규모(?)로 짜여진 취재팀도 충천한 의지로 뭉쳐있었다. 올림픽이 시작되자 하루하루 바쁜 날들이 지나갔다. 회사 차원의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라. 하지만 ‘누군가 닦아놓은 길을 가기보다는 가시답몰을 헤치며 밟고 가면 길이 된다.’는 것. 순탄치만은 않았던 YTN의 10년 역사가, 그곳에 몸담은 이들에게 가르친 교훈이다.

실험이 시작됐다. 6mm 캠코더를 들고 경기장을 드나들었다. 중계권이 없고, 프레스카드도 없어, 그래서 택한 ‘편법’이었다. 더 솔직해지자면 ‘불법’이었고, ‘꼭 이렇게 해야 하나’는 취재팀의 내부적인 고민도 있었

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 현지에 온 만큼 ‘일단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고대올림픽이 열렸던 ‘파나티나이코’ 양궁 경기장에서, 올림픽 축구 8강 진출의 감동을 느끼게 한 축구 경기장에서, 두개의 태극기가 동시에 올라간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케 한 태권도 경기장에서... 벽찬 감동의 순간을 YTN 화면을 통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약조건을 뛰어넘은 투지의 결과였다.

에피소드 하나. 우리끼리 금메달을 닦은 배드민턴 남북식 경기장. 틈틈이 경기장면을 찍다가(방송 프레스카드나 중계권이 없으면 ‘상업적’ 목적으로 경기를 촬영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리라.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자원봉사자나 안전요원들이 제지한다)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을 하는데, 메달 목에 거는 장면도 잡아야 하고 태극기 올라가는 것도 찍어야 하니 하성준 선배가 카메라를 들고 경기장을 누비기 시작했다. 그런데 역시나 안전요원이 제지를 했다. 손가락으로 카메라를 가리키며, 특히 가슴에 방송 프레스카드가 없는 것을 보면서... 하성준 선배 가슴에 붙어있던 것은 주민증 만한 이름표(리포트 송출하는 인터넷센터에서 받은 이름표)뿐. 이때, 시간은 급한데 이렇게 잡혀있다가는 다 놓친다는 생각에 하성준 선배가 이름표를 보여주며 발휘한 기지.

“Gold medalist(하태권/남자복식 금메달) is my family. You see ‘HA’, surname is same!”

이름표를 확인한 안전요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결국은 하성준 선배를 놓아주었다는, 눈물(?) 없는 들을 수 없는 에피소드다.

이렇듯 여건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재팀은 서로를 격려해가며 ‘일당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메워나갔다. 최동호 선배의 숨은 노력으로 수십 명이 온 타사가 생각 못했던 장웅 북한 IOC위원과

인터뷰(인터뷰는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 간이의자를 놓고 진행됐다. 막상 인터뷰에 응한 장웅 위원도 ‘좌담을 한다’고 해놓고 6mm를 들고 온데 놀라는 눈치였다)를 성사시켰고, 비록 이봉주 선수가 우승을 못해 빛을 바래긴 했지만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동원해 곳곳의 통제를 뚫고 42,195km 고대 마라톤코스를 쫓아다니는 마라톤 취재도 힘들었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억으로 남는다.

20여일 출장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 서울과의 시차 때문에 밤낮이 바뀌고, 평균 2시간은 넘게 걸리는 송출 시간 덕분에 일과는 보통 새벽 1시를 넘겨 끝났지만, 숙소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늦은 저녁을 대신한 라면 한 그릇이 준 행복도 소중했다. 썰피 4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이다. 따가운 태양 빛 아래를 누빌 때 감증을 달래준 노천카페의 냉커피 한잔도 그윽한 향기로 남는다. 신화의 땅 그리스의 상징인 파르테논 신전의 야경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렇게 ‘아테네의 삶’과 호흡을 맞춰가기 시작할 즈음, 올림픽의 막을 내렸다.

아쉬움은 적고, 좋은 기억과 보람만 떠올린다. 취재기자 둘, 촬영기자는 하나 뿐인 취재팀의 구성상 낮에는 취재하고 밤에는 송출하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느라 잠 못 자고, 10년 넘게 한번 안 걸렸던 감기까지 걸려 고생한 하성준 선배, 전화연결에 리포트까지 하면서 현장팀장으로서 20여일 내내 물심양면 지원해 준 최동호 선배, 고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집에 와서 쌀밥 짓고 육계장까지 끓여주며 가족처럼 돌봐준 가이드 누님, 모두가 아테네에 ‘YTN의 흔적’을 새긴 공신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나무가 클수록 그 뿌리가 깊듯이 모든 위대한 성과는 장구한 준비가 필요하다” 취재팀 파견에 있어 항상 앞을 내다보며 미리 결정하고, 기자 개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될 때 YTN이 진정 ‘뿌리 깊은 큰 나무’로 커갈 수 있지 않을까. 충심어린 바람이다. 정병화 (사회1부)

해외통신원교육 참가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김혜지 (런던통신원)

아메리칸 사모아 통신원께서 첫날 모두에게 불러주신 유행가 가사다. 한 가지 목적으로 모였지만, 특별한 연결점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던 각국 통신원들은 그제야 머릿속이 정리된 듯 통쾌히 웃었다.

연수 기간 동안 각국 통신원들은 '그 곳'과 '저 곳'으로 서로가 온 나라를 지칭하며, 일정을 따르기 시작했다. YTN 본사와 서울 타워, 재외동포재단 방문, 이틀에 걸친 교육 이외에도 저녁 시간에 모든

분들과 안개 낀 한강에서 유람선을 탔던 기억은 '서울이 이렇게 로맨틱한 도시인가?'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하게 만들었다.

오랜 타국생활로 한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낯설도 있을 법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드라마며 뉴스에 더욱 귀 기울여 왔던 사람들. 바로 재외동포들이 아닐 수 없다. 나만해도 유행을 시작하기 전, 우물 안 개구리로 살지 않겠다고 한국보다는 외국의 문물과 외신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외국에 산지 3년째인 지금, 스스로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한국 방송”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진 한국 방송에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으

로 우물 밖 사막에서 우물 안의 물을 신선하다고 인식하게 되고, 갈망하게 된 것이다. 유행생인 내 경우가 그러하다면, 10년 20년 이상을 타국에서 사신 동포분들은 한국에 대한 소식이 세계의 중요 뉴스 그 이상일 것이 아닌가!

각국 통신원들의 부담의 근원은 바로 이 곳에 있었다. 뉴스의 선택에서부터 단어 하나 그림 하나를 따더라도 민감하게 다루어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동포뉴스일 것이다. 뉴스라는 정보, 전달의 기능을 넘어서서 한인 동포들이 어떻게 서로의 아이덴티티를 위치시킬 수 있는지, 세계 각국의 한인들이 공통의 고민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동포뉴스의 중요 사안일 것이다.

물리적인 위치는 외국에 있지만, 심리적인 위치는 한국/외국의 어느 곳도 아닌 제 3 지대에서 부유하고 있는 동포들. 여기서 생기는 심리적 마찰은 동포들이 겪는 큰 고충들 중 하나이다. 이미 학술적으로는 친숙한 내용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무척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통신원들은 그 심리적인 제 3 지대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을 소통시키는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4박 5일 간의 짧지만 소중한 연수 기간 동안, 각국 통신원들은 YTN 인터내셔널이 제시한 이 강렬한(?) 의무를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올 수 있었다. 그 동안 방송 준비와 각국 통신원들의 일정을 동시에 소화하시느라 수고해주시는 YTN 인터내셔널의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유익하고 알찬 교육



송영구 (독일 통신원)

십년도 넘는 일이지만 방송국에 드나들던 일도 많았고 활자매체의 통신원으로 활동도 많이 했지만, 그동안 접었던 방송과 다시 인연을 맺어서 TV 통신원을 하리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다. TV 통신원 연수는 그동안 방송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계기가 됐다. 3일에 걸쳐 TV 기사작성법, 카메라 조작법, 인터넷을 이용한 송고 방법 등 집중적인 교육 받았는데 하나하나가 통신원 활동에 매우 유익한 것

이다. 그동안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글 썼으나 TV는 처음으로 꽤 긴장하고 열심히 배웠다. 비록 짧은 교육 기간을 통해 잡지나 신문과는 다른 TV보도의 특성을 이해하게 됐고 이에 따라 새로운 관점으로 뉴스를 보게 됐다. 그러나 1분 30초라는 시간의 제약 안에 과연 내가 전달을 하려는 것을 제대로 담을 수 있을 것인지 현재로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은 주로 부, 차장급들이 맡았는데 실무지식을 매우 꼼꼼하게 짚어 주어서 아주 좋았다. 그러나 방대한 분야를 모두 배우기에는 3일은 부족하고 적어도 5일 정도로 교육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랫만에 신경을 써가며 교육을 받으려니 역시 힘은 들었지만 필요성을 절감하다보니 모든 통신원들이 힘든 교육일정을 군말 없이 잘들 따랐다. 특히 내 옆자리의 씨마씨는 아주 예쁜 용모의 아가씨인데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 기술적인 용어는 잘 알아듣기 힘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졸지도 않고 열심히 경청했다. 그 열성이 대단해 감탄했고 우리말을 어떻게 잘 하는지 경이롭기까지 했다.?

나는 예전에는 이장희 같은 명 디스크자기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가다듬는 연습을 하였었는데 이제는 TV 통신원이 되었으니 제대로 된 발음과 어법으로 뉴스를 전하기 위해 다시 신문 읽기를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번 교육을 받고 나니 명칭은 통신원이지만 하는 일은 특파원과 다름없다.

통신원 중에는 현지에서 방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 특파원을 파견하는 것보다 투자대비 효과는 파격적이라 생각하니 YTN의 아이디어와 기획력에 감탄했다.

또 교육을 받기 전에는 YTN의 속사정은 잘 몰랐으나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단절된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작지만 알찬 방송. 그 알찬 곳에 속한 실무자들인 해외방송팀은 교육기간 내내 통신원들과 철저히 밀착을 하여 우리 통신원들을 YTN 맨으로 변화를 시키는데 성공했다. 교육은 교육대로 밤 시간은 밤 시간대로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깊은 친밀감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와 흥겨운 시간이 주어졌다. 특히 표 원수사장께서 건강상 힘든 몸을 이끌고 권하는 특파주를 들이키는 등 술선수법의 모범을 보여줬다. 상하가 풀풀 뭉쳐 신참들을 내 식구 만들기에 성공을 한 것이다.



10·10-YTN가족의날



YTN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YTN 가족의 날' 행사가 노조 주최로 10월 10일 열렸다. 사우 가족들은 방송시설을 둘러보고 뉴스 제작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오픈하우스' 에 이어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족연극 '점프' 도 관람했다. 180가족, 65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 지국사우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살아있는 뉴스' 를 만드는 중계차 앞에서

푸짐한 선물 · 이음표 받고

남산과 서울역이 보이는 옥상 전망대

스튜디오에서 앵커 체험

지국 식구들과 함께